

# 비밀과 거짓말, 폭로와 발설의 쾌락\*

-국가 근대화기 여성대중소설의 선정성 기획을 중심으로-

김은하\*\*

## 〈차례〉

1. 여성대중소설의 문화정치학
2. 페러디적 대항 서사와 판도라 상자 속의 가족
3. 안티 멜로드라마: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의 제의 혹은 계몽 선언
4. 약녀의 도발, 순결한 '살'의 기획
5. 결론

## 〈국문초록〉

이 논문은 박완서의 『도시의 흉년』(1979)을 통해 여성의 글쓰기가 중산층 가정과 여성을 둘러싼 당대 국가의 지배적 규범을 이탈 혹은 해체하는 방식에 주목함으로써 그간 통속적 “여류”로 분류된 여성작가의 창작활동의 의미를 재해석한다. 당시 여성 대중소설은 치정, 범죄, 폭력, 광기, 비밀, 성적 난잡함 등 자극적이고 엽기적인 소재들을 빈번하게 등장시킨다는 점에서 상업적 이익을 위해 풍속을 저해하는 문제적 현상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여성대중소설의 선정성을 상업주의가 아니라 순결주의, 과잉 도덕화를 강제하는 가부장적 국가에 대한 히스테릭한 저항으로 해석해야 한다. 여성대중소설은 주로 비밀스러운 사생활 영역을 충격적이고도 관능적으로 그린다는 점에서 상업적 가치를

\* 이 논문은 2008년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과제지원 사업(과제번호: A00443)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객원교수

고려하고 쓰여졌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감추어진 비밀이 폭로되거나 환상의 베일이 벗겨지는 과정에서 사회의 관습과 제도와 믿음들이 재검토되며 성의 정치학의 문제가 대두한다. 특히 이상적이고 평온해 보이지만 그 내부 속에서는 불만과 분노가 끓어올라 범죄로까지 발전되는 가정 및 사회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문화사회적, 여성문학적 가치를 무시할 수 없다.

그러한 한 사례로 박완서의 『도시의 흥년』은 비밀과 거짓으로 가득한 중산층 가정의 진실을 들추어내려는 욕망으로 가득한 작품이다. 그녀는 한국의 중산층 가족을 소설이라는 검시대에 올려 놓고 비정하고도 날렵하게 해부한다. 중산층 가족은 한국 근대 프로젝트의 추진 동력이자, 그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오류와 균열을 봉합하는 구실을 했다는 점에서 이러한 선택은 의미심장하다. 박완서와 그녀의 문학은 흥미로운 배반의 사례이기도 하다. 박완서는 마흔 살의 나이에 주부 잡지인 『여성동아』를 통해 등단함으로써 여성 작가의 대명사가 되었다. 그러나 그녀는 여성을 국가 근대화를 주도해 나갈 계몽주체로 계도하기보다 근대화와 가부장적 국가의 허위와 억압성을 전시하고 폭로하는 전복적 글쓰기를 선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핵심어: 여성 대중소설, 선정성, 국가 근대화, 중산층 가정, 여성문학, 하위문화적 전복성, 박완서, 『도시의 흥년』(1979) 등

## 1. 여성 대중소설의 문화정치학

본고는 박완서의 『도시의 흥년』(1979)<sup>1)</sup>을 중심으로 여성의 글쓰기가 중산층 가정과 여성을 둘러싼 당대 국가의 지배적 규범을 이탈 혹은 해체하는 방식에 주목함으로써 그간 상업성을 좇는 통속적 “여류”로 분류

1) 『도시의 흥년』은 1975년 12월부터 1979년 7월까지 약 사년에 걸쳐 『문학사상』에 연재되었으며, 문학과지성사에서 1979년에 단행본으로 최초 출간되었다.

된 여성작가의 창작활동의 의미를 재해석하려 한다. 60년대 중반부터 70년대에 이르는 시기에, 여성들의 대중적 글쓰기는 장편소설 창작 시장이 여성에게 점령당했다는 위기의식을 불러올 정도로 본격화되었다. 이는 경제적 호황과 함께 대중매체가 상업화되는 등 문화가 무시 못할 흥행 요소로 부상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었다. 특히 단행본만이 아니라 일간지나 여성지 시장 역시 확대되면서 매체 구독률을 높일 필요성이 커졌다. 그 결과 신문이나 잡지가 창작 활동의 주된 '장'으로 부상했으며, 여성작가들은 미디어 시장의 흥행사로서 인기를 누렸다. 그런데 여성작가들의 대중소설은 치정, 범죄, 폭력, 광기, 비밀, 성적 난잡함 등 자극적이고 엽기적인 소재들을 빈번하게 등장시킨다는 점에서 상업적 이익을 위해 풍속을 저해하는 부정적 현상으로 지목받았다.<sup>2)</sup> 그리고 이러한 평가가 굳어지면서 여성 대중소설들은 여성문학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지도 인정을 받지도 못했다.<sup>3)</sup> 본 연구는 여성작가의 대중소설의 선정성을 상업주의와

2) 다음의 글은 여성작가들의 대중소설이 당시 지식사회에서 상업주의와 영합한 타락한 문화현상으로 받아들여졌음을 보여준다. “본래 여류문학이란 것이 문단의 부산물인지 몰라도 그것이 더욱 각광을 받고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었을까. 이 해답은 여류들의 작품들이 어떠한 마력으로 독자들을 매혹시킬 수 있었던가 하는 애기가 된다. 작가가 자기의 영토를 넓혀가는 첩경으로 매스컴에 재빨리 편승해야 한다는 것은 거의 낡은 상식이다. 많은 여류들이 남성작가들 보다도 선천적인 기질을 십분 발휘해서 민감히 적응했던 탓이라고도 풀이된다. (중략) 굳이 그 사연이란 남성작가들이 본격문학이란 좁은 영토 속에서 담보하고 있을 때 여류들에겐 많은 여성지와 주간지로 그 발표무대를 얼마든지 뻗어 갈 수 있었다는 객관적인 사정을 감안할 수 있다. 거기에서 여류들이 애초에 순문학이나 본격문학에 참여했다고 하더라도 오늘의 매스컴의 생리에 누구보다도 앞질러 영합해 갔다는 것도 지적할 수 있다. 실상 오늘의 인기소설이란 것이 거의 예로물이고 그 작가가 바로 일부 여류명사들이라는 것을 상기한다면 지나친 얘기라고 목살하기 어렵다. 비단 예로문학이 여류들에 의해서 성행된 것은 아니더라도 그 베스트의 작가로 여류명사들이 장식해야 한다는 것은 슬픈 현실이다.”(윤병로, 「현대 여류 작가의 문학적 성향」, 『한국현대소설의 탐구』, 범우사, 1980, 134~5쪽)

3) 한원영에 의하면, 8·15 광복 후부터 1995년 말까지 신문에 연재된 소설의 양은 약 1,400여 편이며 이 중에 여성작가의 작품은 약 5분의 1을 차지한다. 이 중 6~70년대의 경우, 여성 작가의 층이 두텁지 않음에도 여성 작가가 연재를 맡은 비중이 높았다. 강신재의 경우, 순 문예지를 제외하고 여성잡지와 신문에만 총 17편의

결부짓기보다 순결주의, 과잉 도덕화로 요약되는 가부장적 근대화에 대한 히스테릭한 저항으로 조명함으로써 이들 작품들을 페미니스트 연구 영역으로 끌어들이려 한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여성성’과 ‘대중성’은 매우 연관성 깊은 개념들이다. 이는 대중문학의 주된 창작자와 소비자가 여성인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보봐리 부인』(플로베르)에서 엿볼 수 있듯이 부정적이고 몽상적인 소설에 빠져 현실과 환상을 구분하지 못한 채 자기과멸에 이르고 마는 나약하고 어리석은 인물은 주로 여성으로 표상되어왔다. 이렇듯 여성문학=대중문학의 공식은 결국 여성들이 쓴 문학을 폄훼하는 역할을 해왔다. 비속함, 선정주의, 자기과장, 부풀려진 상상력, 신중함의 결여, 진부하고 보수주의적 상상력, 비현실성 등 그간 여성문학-대중문학을 따라다니는 수식어들이 이러한 판단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6~70년대 여성대중소설들은 ‘여성성’과 ‘대중성’을 둘러싼 논의들이 좀더 신중하게 다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여성대중소설은 한국적 산업자본주의의 세속적 풍경 혹은 사회적 리얼리티를 민감하게 포착하고 있는 트렌디 드라마의 성격이 강하다. 무엇보다 가부장적 규범과 이데올로기에 짓눌린 여성들의 젠더 체험을 포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여성 집단의 무의식적 욕망을 분출시키는 전복적 요소도 있다.

그간 대중문화 비평가들은 대중소설을 문화산업에서 수동적인 입장에 있는 대중을 조종하고 기만하는 자본주의자의 활동이라고 비난하거나, 대중문화는 실제로 자신들을 위해 대중 스스로 만들어 낸 문화로 옹호하는 등 극단적으로 대립해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대중문화가 통속적이면서도 대중적 형식의 잠재력을 인식한 점에서 설득력 있을 뿐 아니라 독서 대중의 필요와 욕구가 집합적인 의미창출에 있어서 반대세력으로 작

---

장편을 연재했다. 전병순, 박기원, 박경리 역시 단편보다 장편연재 중심으로 창작 활동하면서 상당히 많은 양의 작품을 남겼다. 따라서 이 시기 장편연재소설들을 배제하고 나면 여성문학사에 큰 공백이 발생한다. 한원영, 『한국현대 신문연재소설연구』, 국학자료원, 1999.

용할 수도 있다는 점 등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대중문화-여성문학이 전복적이나 지배 이념에 순응하느냐는 이분법을 벗어날 필요가 있다. 여성적인 것과 대중적인 것이 만나면서 가부장제적 금기, 구속, 법률 등 억압적 이데올로기에 대립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당대의 여성대중소설은 과도한 선정성에서 드러나듯이 50년대나 60년대 중반의 낭만적이고 서정적인 장편연애소설과 그 성격이 매우 다르다. 그것은 국가근대화의 성과가 가시화되기 시작한 이후, 즉 60년대 중후반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글쓰기 양식이다. 이들 여성대중소설은 주로 비밀스러운 사생활 영역을 충격적이고도 관능적으로 그린다는 점에서 상업적 가치를 고려하고 쓰여졌다. 그러나 비밀스러운 일들이 폭로되거나 환상의 베일이 벗겨지는 과정에서 사회의 관습과 제도와 믿음들이 재검토되며 성의 정치학의 문제가 대두한다. 특히 이상적이고 평온해 보이지만 그 내부 속에서는 불만과 분노가 끓어올라 범죄로까지 발전되는 가정 및 사회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문화사회적, 여성문학적 가치를 무시할 수 없다.

신건에 따르면 당시 ‘현모양처’상은 여성지도자들에 의해 여성들의 성공적 삶의 모델로 제시되었는데, 이러한 현상은 서구의 ‘가정성 숭배’ 풍조의 발생 맥락과 유사하다.<sup>4)</sup> 가정성 숭배라는 사회적 현상은 가정과 가족을 미화하는 한편 가족을 사회적 덕목과 개인적 도덕구현의 장으로 개념화하였다.<sup>5)</sup> 가정성 숭배의 분위기는 여성들에 의해 적극적으로 수용되었다. 6~70년대 사회의 친밀성 구조의 변화와 열정의 재배치의 양상과 그 의미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근대사회에서 도시 중산층은 부부간의 사

4) 신건, 「1960~70년대 근대화 프로젝트와 여성담론에 관한 연구-여성단체협의회 『여성』지 분석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30~36쪽.

5) 중산층 가정은 한국의 근대화에 대한 대중의 동의를 자연스럽게 유발하는 문화적 상징이었고, 이때 중산층 여성-가정주부는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도덕적으로 건전한 스위트 홈의 표상이었다. 용신봉사상, 알뜰한 주부상 제정, 가계부 적기 운동 등의 사업이 말해주듯 여성은 조국 근대화의 기수였다. 이는 국가 근대화 사업이 근대국가와 가정 그리고 여성을 상호적으로 이으면서 진행되었음을 암시한다. 따라서 여성 대중소설에 나타난 여성의 재현을 가부장적 성규범과 그러한 규범을 강제하는 사회에 대한 하위문화적 도발로 볼 수 있다.

량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근대적 스위트홈을 지향하면서 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가치를 강조한다. 가정은 전통적인 가부장제 아래의 혈족과 대가족의 기능을 강조한 것에서 아내와 남편의 돈독한 애정과 이러한 부모와 아이들의 친밀한 관계를 보여주는 핵가족 형태로 변화한 것이다. 그러므로 연애 결혼, 의사소통하는 평등한 부부관계는 중산층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가치가 되었으며, 특히 여성에게 이 영역은 진정한 자아실현의 장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기실 이러한 변화는 여성을 고립된 사적 영역 속에 깊숙이 밀어 넣고 순응을 유도하는 것이었다. 여성대중소설들은 중산층 가정에 대한 환상을 깨뜨림으로써 여성들의 불안과 공포를 반영하고 있다. 무엇보다 사회적 선전이나 여성의 기대와 달리, 친밀성의 영역은 결코 스위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본고는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중산층 가정이 혼외정사, 폭력, 범죄, 광기 등과 연루됨으로써 선정성을 질게 풍기는 양상에 주목하겠다. 중산층 스위트홈에 관한 당대의 언설이 내포하듯 이들 소설에서 가정은 도시산업사회의 냉정함이나 삭막함으로부터의 피난처이거나, 건전한 문화의 장소가 아니다. 이는 국가 근대화에 대한 희망이 불안감으로 교체되고 있으며, 여성작가들의 대중소설이 그러한 사회적 불안과 근심을 담고 있음을 암시한다. 중산층 가정에 대한 상상력을 주목해야 하는 까닭은, 국가 근대화 과정에서 중산층은 실제 출현하기 시작한 현실태이자 개발기 사회구성원의 집단적, 개인적 요구와 욕망이 투사되고 있는 특정한 이념태였기 때문이다. 당시의 근대화 논리와 발전주의적 구상은 계층구조상의 중간층의 확대를 기본적인 목표로 삼고 있었는데, 이때의 중산층은 단순히 경제적 계층이 아니라 건전한 문화 육성과 생산/주체로서의 집단을 가리킨다.<sup>6)</sup> 그러나 이들 소설에서 중산층 가정은 물질

6) 김예림의 「1960년대 중후반 개발 내셔널리즘과 중산층 가정 판타지의 문화정치학」은 본 연구의 문제의식과 유사하다. 이 논문은 개별 작품에 한정된 여성문학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좀 더 포괄적이고 중층적인 문제 인식의 틀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문학 바깥으로 나아가 당대의 담론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적으로는 풍요롭지만 기실 혼외정사, 폭력, 범죄, 죽음 등 어두운 비밀이 도사리고 있는 거짓 성소이다.

그간 박완서 문학에 대한 연구는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졌지만, 『도시의 흥년』, 『휘청거리는 오후』 등 70년대 장편소설들은 뛰어난 문학적 성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취급받아왔다. 이들 작품들은 박완서를 다소 조야한 대중소설가로 분류하는<sup>7)</sup> 근거로 활용되었다. 실제로 박완서 문학세계에서 이 시기만큼 선정성이 두드러진 때도 없다. 그러나 이 작품들을 손쉽게 상업성의 증거로 규정하기 전에 “규수작가” 혹은 주부작가의 대명사였던 박완서가 왜 선정적 성격이 강한 장편 소설 창작에 주목했는지 깊이 해명할 필요가 있다.<sup>8)</sup> 중산층 가정의 추악한 이면을 노출하는데 주력해온 이들의 대다수가 해방 이후 여성계몽의 사회적 책임을 짊어지고 있었던 여성작가들이었다.<sup>9)</sup> 특히 박완서는 흥미로운 배반의

의의가 있다. 이 논문은 당시의 중산층 집단이 국가 개발의 달성 정도, 안정적 발전의 정도를 말해주는 지표로, 국가내셔널리즘이 손쉽게 대중의 동의를 얻게 만든 지배집단이었으며, 그러한 문화정치학의 핵심에 중산층 가정과 주부가 위치해 있음을 간파하고 있다. 몇몇의 인문사회과학계의 여성학적 연구 역시 넓게 보면, 본 연구 주제와 관련된다. 「1960~70년대 근대화 프로젝트와 여성담론에 관한 연구-여성단체협의회 『여성』지 분석을 중심으로」(신진), 「1960년대 노동자의 색슈얼리티와 계급정치」·「1960~70년대 가정주부(아내)의 형성과 젠더정치」(장미경), 『현대 한국중산층 주부역할 형성과정에 관한 분석-6, 70년대 여성잡지를 중심으로』(다니자키 아쓰코)의 연구는, 여성, 가정, 중산층 문화를 축으로 한 매체분석을 통해 근대성의 내연과 외연을 잇는 고리로서 ‘여성’에 주목한다. 김예림, 「1960년대 중후반 개발 내셔널리즘과 중산층 가정 판타지의 문화정치학」, 『현대문학의 연구』 제 32집, 2007, 364쪽.

7) 오생근, 「대중문학의 전개」, 권영민 엮음, 『해방 40년의 문학4』, 민음사, 1977; 이동하, 「집없는 시대의 꿈」, 『세계의 문학』, 1982. 겨울.

8) 애초 이 논문은 강신재의 70년대 선정적 대중소설의 다양한 스펙트럼과 그 의미를 살펴보려 했으나, 강신재 소설에 대한 분석은 다음 기회에 선보이고자 한다.

9) 박완서와 유사한 예로 강신재를 들 수 있다. 강신재는 50년대 여성교양지인 『여원』 『여상』 등을 통해 여성들의 생활세계와 심리의 문제에 천착한 작품을 발표하면서 대표적인 “규수작가” 혹은 여류문학의 대명사가 되어 왔다. 그런데 그녀의 초기작속 “애브노멀한 여성”들은 60년대 중반에 이르러 작가가 본격적으로 장편 대중소설 창작에 나서면서 치명적인 매력의 탕녀 혹은 낭만적 사랑을 냉소하는 악녀로 ‘진화’해 갔다. 물론 대체로 주인공 역은 악녀가 아니라 구원의 천사에 못지않은

사례이다. 국가 근대화기에 여성잡지는 여성작가를 탄생시키고 후원했으며, 특히 여성의 경험과 내면을 초점화함으로써 여성지성의 출현을 유도했다.<sup>10)</sup> 글쓰기는 여성 교양의 자질 중 하나였다. 여성 『여성동아』를 통해 등단한 박완서는 마흔살의 등단이라는 특이한 이력과 함께 주부작가의 대명사가 되었다. 그러나 그녀의 작품은 근대화와 가부장적 국가의 허위와 억압성을 전시하고 폭로함으로써 당대 사회의 지배 이념을 배반하고 있다. 그녀의 소설은 중산층 가정과 여성성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구축되어 온 내셔널리즘의 문화정치학을 내파하려는 듯 ‘가정’을 한국 근대의 병리성이 폭로되는 장소로 포착한다. 그리고 여성을 그러한 허위를 폭로하기 위한 선정적 퍼포먼스의 주체로 제시한다. 여성은 내셔널리즘의 희생자이자 공모자이기 때문이다. 특히 순결, 즉 당대 가부장적 국가의 여성성 이데올로기에 균열을 일으키려는 듯 그녀들은 선정성을 질게 풍기며 ‘악녀’를 연기한다.

## 2. 패러디적 대항 서사와 판도라 상자 속의 가족

『도시의 흉년』은 얼핏 격세를 유전하는 운명의 힘을 그리고 있는 가정 비극담인 듯 보인다. 소설의 말미에 이르면 친할머니의 예언, 즉 ‘남녀 쌍둥이는 상피불는다’는 저주가 실현되는 듯 보이기 때문이다. 소설의 도입부에서 주인공 수연이 할머니의 저주를 떠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말은 더욱 예사롭지 않아 보인다. 물론 남매 쌍둥이인 수연과 수빈은 실제로 근친상간을 저지르지 않았다. 이들 남매는 다소 우연한 상황 속에서

---

순결한 여성에게 주어지지만, 강신재의 중·후기 소설을 읽는 재미는 악녀들의 파행과 일탈에서 비롯된다.

- 10) 여성잡지 공모제도의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고하라. 김양선, 「전후 여성문학 장의 형성 연구: 여성잡지와 여성문학의 공생을 중심으로」, 『『여원』연구-여성·교양·매체』, 국학자료원, 2008. 이선옥, 「『여류현상문예』와 주부담론의 균열」, 『『여원』연구-여성·교양·매체』, 국학자료원, 2008.



가족들에게 근친상간을 저지른 듯한 오해를 받기 때문에 기실 소문의 희생자에 가깝다. 그러나 비록 사실의 차원이 아니지만 쌍둥이 남매에게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은 수연 일가가 파멸을 향해가는 계기로 작용해 저주가 실현되는 듯 보인다. 할머니가 친손녀인 수연을 그토록 미워하고 증오했던 것도 운명에 대한 두려움때문이었다. 수연 할머니 자신이 저주의 증거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남매 쌍둥이는 상피붙는다’는 미신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부모에게 버림받았지만, 마치 운명인 양 자신의 쌍둥이 오빠를 만나 사랑에 빠져 근친상간의 죄를 저지른다.

그러나 기실 이 소설은 남매 쌍둥이의 근친상간이라는 극적인 모티프를 통해 운명의 힘을 강조하고 있지 않다. 되레 그것을 예언의 실현이 아니라 미신 혹은 허위가 인간에게 가한 폭력으로 포착한다. 작가는 대고모 할머니의 입을 빌어, 근친상간을 저지른 이들의 비명과 항의를 전달한다. 수연 할머니의 오빠는 자신이 사랑한 여자가 쌍둥이 여동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진작에 그 일을 알려주셨으면 이런 일은 나지 않았어요. 우린 안 나빠요. 나쁜 건 어머니예요.”(상편, 304쪽)라고 절규한 후 저수지에 뛰어들어 자신의 생을 몰수한다. 즉, 소설은 운명에 승복하기보다, 오히려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지 않고 미망에 붙들린 세계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기실 먹을 것이 부족하고 유아 사망률이 높은 시절, 여자 아이보다는 남자 아이의 생명을 우선시한 남아 선호의 폐습이 만들어 낸 소문 혹은 주술이다. 그러므로 근친상간 모티프는 운명의 파괴적 힘을 보여주는 증거가 아니라, 끈찍한 비밀과 거짓말을 숨기고 있는 휘장을 걷어 적나라한 사실의 세계를 들추어내려는 리얼리즘의 충동이 불러낸 상상력이다.

‘근친상간 모티프’는 70년대 사회에 대한 작가의 환멸과 혐오, 그리고 대결의식을 암시한다. 박정희 시대의 대중적 삽화를 빌려와 70년대 사회를 공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작품은 패러디적 전복의 충동이 우세하다. 수연의 비극적 가족사는 마치 『선데이 서울』류의 황색 저널에 나올법한 엽기적인 이야기들을 연상시킨다. 6~70년대 대표적인 대중 미디어인 『아

리랑』, 『선데이 서울』 등에서 ‘독자의 편지’나 ‘고민상담란’,<sup>11)</sup> 이야기 형식의 기획기사<sup>12)</sup>들은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다른 한편으로 공포 역시 부추기는 대중적 코너들이었다. 그리고 근친상간은 성폭력, 동성애, 혼전임신, 혼외정사, 미혼모 등과 함께 은밀한 독서의 주요 목록이었다. 이러한 선정적 소재들은 파국에 대한 공포를 불러일으킴으로써 주체의 의식을 얼어붙게 만드는 파시즘 정치가 섹슈얼리티라는 의장을 빌어 알레고리화하면서 출현된 것이다. 이 은밀한 독서는 호기심, 긴장감, 관음증 등을 수반함으로써 금지를 상기시키는 다른 한편으로 위반의 쾌락을 안겨 준다. ‘근친상간 모티프’는 박정희 시대, 즉 과도하게 순결을 예찬하거나 성에 대한 극도의 죄의식으로 주체를 무력화함으로써 정치적 권위를 획득하는 파시즘 사회에 대한 패러디적 위반의 상상력이다.

빌헬름 라이히는 파시즘을 성심리적 메카니즘으로 분석하면서, 한 사회의 지지계층의 심적 구조가 어떻게 경제적 틀에 적합하게 되고 정밀기계의 부속품처럼 통치 권력의 목적에 이바지하게 되는지는 오랫동안 풀리지 않을 수수께끼로 남아 있을 것이라고 질문한 후, 한 사회의 경제 체제가 대중들의 심리에 구조적으로 재생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기본적

11) 당시 대중 잡지의 고정코너였던 독자상담 혹은 독자고백란의 주된 내용은 대개 성적 비밀과 관련된 의료, 법률, 심리 상담이 주를 이루었다. 이 코너들은 독자를 ‘수유리의 고민남’ 식으로 익명 처리하고 있기도 하지만, 그 내용이 다분히 선정적으로 서술되어 있어 진정성이 의심된다. 편집자는 흥행을 의도하며 독자의 편지를 선정적으로 윤색했을 수 있다. 혹은 당대 독자들은 암묵적으로 독자 코너를 사실을 빗자한 허구의 장으로 공유하며, 자신이 겪거나 누군가에게 들은 이야기를 독자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식으로 재서술하거나 처음부터 흥미를 염두에 두고 지어냈을 가능성이 높다.

12) 이를 테면 『아리랑』에 실린 시리즈 코너 중 하나인 ‘여의사의 수기’는 실제 산부인과 여의사가 자신의 의료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를 각색해 무분별한 성적 욕망이 육체와 관련된 난감한 문제들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들려준다. 논픽션을 표방했지만 기실 여의사의 수기는 소설을 연상시킬 만큼, 일탈이 불러온 결과를 성적 에피소드 중심으로 선정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 수기는 사실과 허구의 경계를 오가며 성을 사랑과 감정의 문제가 임신이나 출산 그리고 폭력의 문제와 결부시킴으로써 육체에 대한 자기 감시의 필요성을 설득한다.

메카니즘으로 성적 억압에 기초한 권위주의적 가족을 든다. 즉, 가족은 파시즘에 협력하는 개인을 만들어내는 구조적 메커니즘이며, 성의 금지와 성적 쇠약, 즉 성적 죄의식과 두려움을 파시즘 체제를 떠받치는 심리적 동인으로 작동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성에 대한 과도한 공포, 즉 자신의 성적 욕망을 통제하고 억눌러야 한다는 생각이 강할수록 성은 의식의 밑으로 가라앉는 게 아니라 정신을 압도하는 몰두의 대상이자, 기괴한 비밀의 원천이 되는 역설이 벌어진다. 이러한 판단을 증명하듯, 소설 속 가족은 당대 한국사회의 모순과 부패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sup>13)</sup> 수연의 일기는 남부러울 게 없어 보이는 중산층 가정이지만 추잡한 성적 비밀을 숨기고 있다. 그녀의 아버지는 두 집 살림을 하며 아내를 기만하고, 어머니 역시 충족되지 못한 성적 욕망을 운전기사와의 불륜을 통해 충족한다. 장녀는 낭만적 사랑을 조롱하며 재산과 미모를 내세워 가난하지만 사법고시에 패스를 남자와 정략 결혼을 할만큼 타락했다. 주인공 수연은 어떠한가? 환멸감 때문에 언니의 남편될 이를 유혹해 성교하며, 엄마와 공모해 자신의 몸에 인공의 처녀막을 부착하는 그녀 역시 병리적인 사회의 그림자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이 소설의 전편에는 마치 억제할 수 없는 파괴적 충동에 이끌리는 히스테리 환자를 연상시키는 발설과 폭로의 언어들만 가득하다. 박완서 문학 세계 속에서 70년대 문학은 그 어떤 시기보다도 세계에 대한 혐오와

13) 라이히에 따르면 권위주의적 국가는 아버지의 상을 통하여 모든 가족 속에 자신의 대리인을 만든다. 따라서 가족은 권력의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된다. 아버지의 권위주의적 지위는 그의 정치적 역할을 반영하며, 가족과 권위주의적 국가 사이의 관계를 드러낸다. 가족 내에서 아버지는 생산과정 속에서 아버지의 상사가 아버지에 대해 갖는 것과 동일한 지위를 소유한다. 따라서 권위에 복종하는 그의 태도는 아이들, 특히 아들 속에 재생산된다. 하층 중산계급 사람들의 총통상에 대한 수동적이고 복종적인 태도는 이러한 조건으로부터 흘러나온다. 특히 아버지의 지위가 필연적으로 동반하는 것은 여성과 어린 아이에 대한 대단히 엄격한 성적 억압이다. 여성은 하층 중산계급의 영향력 하에서 인종하는 태도를 형성하는 반면, 아들은 권위에 대한 복종적인 태도뿐만 아니라, 아버지와의 강한 동일시를 발전시키며 이것이 바로 모든 종류의 권위와 동일시하게 되는 토대가 되는 것이다. 빌헬름 라이히 저, 오세철·문형구 역, 『파시즘의 대중심리』, 현상과 인식, 1987, 85~86쪽.

환멸감이 두드러진다. 마치 더러운 고름의 실체를 붙들어 남김없이 균을 빨아내려는 듯 한국 근대의 비루하고도 처참한 풍속에 메스가 가해지고 숨겨져 있던 추악한 풍속의 실태가 한창 부란 중인 시인의 그것 마냥 가차없이 악취를 뿜어내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작가는 한국의 중산층 가족을 소설이라는 검시대에 올려 놓고 비정하고도 날렵하게 해부한다. 가족은 한국 근대 프로젝트의 추진 동력이자, 그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오류와 균열을 봉합하는 구실을 했기 때문에 중산층 가족이라는 소설의 무대는 단순히 사적 가정이 아니라 한 시대의 진실을 포착할 수 있는 문제적인 장소가 된다. 그러나 작가는 행복의 표상으로 간주되던 이층 양옥을 부끄러운 비밀이 숨겨진 장소로 재현함으로써 이른바 양옥집으로 표상되는 한국 근대의 중산층 문화 혹은 중산층 이데올로기에 대한 패러디적 위반을 시도한다. 작가는 70년대에 대한 조밀하면서도 총체적인 조감을 위해 가족을 선택했다.

“동지를 앞둔 첫추위는 첫추위답잖게 매서웠지만 종종걸음을 칠 정도는 아니었다. 곧 크리스마스가 되겠구나. 점잖은 체하는 것들을 똥같이 무시해 줄 수 있는 신나는 날이. 세찬 광란에의 욕구가 간지럼 태우듯이 온몸을 근지럽혀 나는 뒤틀면서 키들었다.

축대 위에 우뚝 솟은 우리집은 이층은 거의 불이 켜진 적이 없고, 아래층도 높은 담장과 정원수에 가려 결코 외부에 안의 동정을 엿보는 법이 없다. 다만 바가지로 얹어놓은 모양의 수은등의 창백한 빛을 받은 정원의 상록수들이 낮에 보는 것보다 훨씬 울창해 흡사 숲처럼 보이고 집도 성처럼 보인다. 그러나 낮에 보면 웬만한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벼락부자 티가 더러덕더러 나는 속악을 극한 양옥일 따름이다.”(상편, 11~12쪽)

독자는 버스에서 내린 여고생 수연을 따라가다가 중산층의 양옥 이층 집, 수연의 표현을 빌자면 “벼락부자 티가 더러덕더러 나는 속악을 극한 양옥”의 문 앞에 서게 된다. 수연의 집은 당대 사회에서 마치 집단적 소망

의 표상처럼 받아들여졌던 ‘이층 양옥’이다. 물질적 풍요에 대한 당대의 집단적 판타지를 응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층 양옥주택이었다. 집은 식민 체험과 한국전쟁 등 가파른 현대사 속에서 부침 많은 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한국인에게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도 소유하고 싶은 것이어서, 삶의 근원적인 추진력으로 작용한다. 나아가 집은 성공과 출세의 다른 이름, 즉 발전 이데올로기에 동조하게 만들었다. 그러므로 그것은 한국인의 가치전도된 삶의 표상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집이 재생산이 일어나거나 정서적 유대를 꾀하는 장소가 아니라 페티시적 소망마저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이를 증명하듯 수연 아버지의 감추어둔 첩은, 겨우 흉내만 낸 편에 가까운 이층집임에도 불구하고 희열에 들떠 이층계단을 오르내린다. 그녀에게 이층집은 자신이 불구이자,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첩이라는 수치스러운 처지에 대한 보상이다. 그녀는 호적에 올리지 못한 아이를 안고 이층 창밖으로 남편을 배웅하는 것으로, 자신의 비참을 위로하려 한다. 절름발이인 그녀가 온전치 못한 몸으로 추락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부실한 층층다리를 오르내릴 때 이층양옥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페티시적 소망의 대상이 된다. 이 조잡한 계단 위의 퍼포먼스는 번영과 출세에 반겨진 한국인의 욕망을 병리적인 것으로 희화화한다.

작가는 이렇듯 이층 양옥을 소설의 무대로 선택해 그곳에 숨어있는 비밀과 거짓말들을 찾아내, 이를 세상에 폭로하고자 한다. 인용문에서 보듯 수연의 이층양옥은 거의 불이 켜진 적이 없을 뿐더러 높은 담장과 정원수에 가려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비밀의 세계이다. 이러한 서술은 단지 수연의 집이 얼마나 웅장하고 화려한 저택인가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이 집이 화려하고 웅장한 외관에 가려져 어떤 불편한 진실을 숨기고 있음을 암시한다. 어두운 수은등, 높은 담장, 정원수로 은닉하고 있는 것은 한국 근대화, 즉 발전 이데올로기의 어두운 진실이다. 박정희 시대는 흔히 진보 혹은 개발신화라고 불리는 데서 알 수 있듯이 근대화가 지상과제로 제시되면서 국민 총동원 체제의 성격을 띠었다. 근대화는 식민체험, 내전 체험으로 얼룩진 한국사의 불행들을 보상받기

위한 마법의 주문으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중산층 가정은 한국 근대화가 감추고 싶어 하는 부끄러운 진실의 증거일 수 있다. 작가는 이렇듯 숨겨져 있는 불편한 진실을 파헤치고자 하는 욕망을 “광란에의 욕구”로, 한국 근대화를 광기, 즉 병리성으로 선언한다. 그러나 그러한 계층착한 진실에 다가가는 이의 두려움과 희열도 엿볼 수 있다. 작가는 외설의 상상력을 통해 한국 국가 근대화의 심연을 직시한다.

### 3. 안티 멜로드라마: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의 제의 혹은 계몽 선언

이 작품은 얼핏 비극적 멜로드라마를 연상시킨다. 끝내 연인과 독자의 소망을 외면하고 죽어가는 멜로드라마의 여주인공처럼 작중 인물들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향해 가기 때문이다. 소설의 후반부에 이르면 수연 일가의 숨겨진 비밀과 거짓말들이 하나둘씩 밝혀지고, 이들이 품었던 욕망과 그것이 거두어들이던 풍요는 한낱 물거품이 된다. 그러나 이 소설에서 패배하고 좌절할수록 피해자의 고결함이 더욱 빛나는 멜로드라마의 법칙<sup>14)</sup>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독자는 모든 신성한 것이 휘발되어버린 황막한 세계의 한 가운데에 자신이 내던져 있음을 깨닫게 된다. 지워버린 줄 알았던 얼룩이 선연히 살아나고 꿈꿨던 때에 두었던 비밀이 날날이 폭로되고 말기 때문이다. 파국을 향해 가지만 그 끝에는 어떤 구원의 실마리도 보이지 않는다. 무엇보다 작중인물들은 우연한 사건을 계기로 진

14) 벤 싱어에 의하면, 멜로드라마는 한편으로 가혹하고 예측불가능한 근대 자본주의의 물질적 삶에서 개인의 무능력함을 극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한편으로 고차원적인 도덕적 힘이 여전히 지상을 내려다보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그 정의로운 손으로 세계를 다스린다는 것을 안심시킨다는 점에서 준-종교적인 개량적 기능을 수행했다. 박해받는 피해자와 그에 대한 관객들의 동정은 세상의 타락을 고발하는 동시에 선과 구원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기도 하다. 벤 싱어 지음, 이위정 옮김, 『멜로드라마와 자본주의의 결과들』, 『멜로드라마와 모더니티』, 문학동네, 2009, 202쪽.

실에 눈뜨지만, 기실 모든 사건은 합법칙적인 구조의 결과물이다. 박완서는 우연적 요소나 선악 이분법 그리고 구원의 가능성을 완전히 추방함으로써 안티 멜로드라마를 선언한다.

과국의 상상력은 비판적, 성찰적 주체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박완서 소설은 70년대 한국문학에서 거의 유일하게 성찰적 주체의 탄생을 기획하고 있다. 이 작품이 수연의 성년식, 즉 성숙의 통과제의 과정을 담은 교양소설이라는 점은 결코 우연의 소산이 아니다. 칸트는 「계몽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에서 계몽을 “우리가 마땅히 스스로 책임져야 할 미성년 상태에서부터 벗어나는 것”<sup>15)</sup>이라고 한 바 있다. 이는 ‘성숙’을 단순히 생물학적, 법률적인 차원에서 정의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칸트는 사람들이 미성년에 머무르려는 이유를 게으름과 비겁함 때문이라고 함으로써 성숙을 전통과 권위로부터 자유를 획득하는 고독한 과정임을 암시한다. 왜냐하면 보호자의 지도없이, 즉 오로지 혼자서 ‘위협’과 마주하는 과정 없이 계몽 주체 혹은 해방된 개인은 탄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칸트는 사람들이 미성년을 벗어나기 어려운 것은 ‘기계적 도구들’<sup>16)</sup>이 족쇄처럼 작동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이러한 통찰은 70년대가 집단 전체가 성숙을 좌절당한 미성년의 시간이었음을 갈파하게 한다. 박정희 정부는 미디어를 장악해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고, 공포 권력을 내세워 계몽을 막았기 때문에 순응적인 국민은 있었지만 성찰적인 시민이 탄생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sup>17)</sup> 성숙의 도정 속에서 수연이 통과해 가야 할 것은 바로 한국적 근대의 적나라한 초상을 마주하는 일이다.

“심한 굶주림 끝의 어느 날, 김복실 여사는 드디어 이웃의 빈집을 뚫고 들어가 몇 뒷박의 곡식을 찾아낼 수가 있었고 그 후부터 빈집들이 그녀에게

15) 이한구 편역, 『칸트의 역사철학』, 서광사, 1992, 13쪽.

16) 앞의 책, 14쪽.

17) 조한혜정, '불균형 '발전' 속의 주체 형성: 한국 근대화에 대한 여성주의 비판', 『성찰적 근대성과 페미니즘』, 또 하나의 문화, 1998.

전연 새로운 뜻을 지니기 시작했다. 남의 것을 훔치고 있다는 죄책감 같은 것은 애당초 없었다. 그녀는 땃땃했다. 그녀는 남의 빈집 속에서 절대로 먹을 것 외엔 거들떠도 안 봤고, 버리고 간 곡식이라도 주워다가 노인파 어린 자식을 먹여살린다는 건 너무나 훌륭하고 도덕적이어서 그녀는 못내 자랑스럽기까지 했다. (중략)

이쯤된 어느 날 그녀는 처음으로 먹을 것 아닌 물건에 강렬한 욕망을 느꼈다. 그것은 아주 화려한 수가 놓인 공단 이부자리였다. 매끄러운 비단 바탕을 훔린 듯이 가만히 어루만졌다. 그러나 손바닥이 원체 거칠었던지라 비단 바탕은 보푸라기를 일며 손바닥에 거슬려 왔다. 방바닥에 펼쳐놓고 보니 나래를 활짝 편 공작이 한 쌍, 실물보다도 호화롭게 수놓아져 있었다. 그녀는 이런 사치한 걸 밤에 덮고 자는 인종을 상상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도 그녀는 이 아름다운 걸 소유하고 싶었다.”(상편, 46~47쪽)

박완서에 따르면 한국 전쟁은 한국 근대화의 미래를 예고하는 기원적 사건이다. 왜냐하면 김복실 여사의 변모가 그러하듯이 바보스러우리만치 순진하고 단순하기만 했던 한국인을 욕망하는 인간 존재로 변모시켜 놓았기 때문이다. 한국 전쟁은 도둑질의 수치심보다 생존의 신성성을 한국인의 의식 속에 각인시켜 주었다. 그러나 한국전쟁이 휴전상태로 돌입한 후, 창백한 얼굴에 화색이 돌 정도로 전쟁의 상처가 아물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시 하의 생존법은 폐기되기는커녕 더욱 더 극성을 부린다. 생존이 최고의 도덕률로 전치된 삶, 즉 전후 한국인의 정신세계를 지배한 것은 먹고 사는 일만큼 중요한 게 없고, 정의나 도덕보다 앞서는 것은 생존이라는 것이다.<sup>18)</sup> 무엇보다 박정희는 먹고 사는 문제를 단순히 시급한 선결과제로 제시한 게 아니라, 근대화 자체로 등치시킴으로써 속물사회를 실현한다. 시장 혹은 경제는 정치나 사상 등 여타의 어휘보다 더 신성한 힘을 발휘하는 가치의 최종심급이 되었다. 한국의 근대화는 시장을 발명

18) 김은하, 「완료된 전쟁과 끝나지 않은 이야기」, 『실천문학』2001년 여름호(62호), 실천문학사.



했지만, 인권, 시민 사회, 개인주의, 민주주의, 계몽된 근대 주체 등 근대 문명의 위대한 발명품들의 탄생을 저지했다.

근대 한국인은 살아남기 위한 인간의 욕망을 긍정하고, 자존심이나 체면 등 허위로부터 풀려났다. 그러나 생존을 도덕의 문제로 전도시킴으로써 개인의 탐욕을 정당화했다. 위의 인용 장면은 한국적 속물의 등장과 그의 미래를 예고하고 있어 문제적이다. 살아남은 자들은 자신이 굶주림의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았다는 자부심도 크지만, 수치심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수치심에 휩싸여 스스로 붕괴하지 않기 위해 혹은 수치의 맨 얼굴을 지우기 위해 더 많은 것들을 욕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속물은 부지런하다. 이 소설에는 수치의 기억으로부터 고통받기 때문에 진정성을 필요로 하는 고등 속물이 아니라, 안락과 편리가 주어진 육체적 생존에 만족을 느낄 뿐 아니라 타인에게 과시하고 어느 누구도 무시 못할 권력을 얻기 위해 많은 돈을 필요로 하는 저급한 속물의 초상이 담겨 있다.<sup>19)</sup> 그러나 속물이라고 수치심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수연이네의 대저택, 저택을 채운 고급한 물건들, 자식들의 명문대 졸업장, 돈과 권력의 교환으로서의 결혼 등은 속물의 일람표 혹은 속물들의 생존방식이다. 공단 이부자리는 수치를 은폐하기 위해 속물이 필요로 하는 의장이다.

수연 일가는 수치의 기억으로부터 자유를 획득하는 듯 보인다. 전시 하에서 도둑질로 연명하는 비법을 터득한 김복실 여사는 “양색시 장사”(상편, 55쪽)로 변신할 만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녀는 이제 주어진 삶을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수동적이고 무기력한 여자가 아니라 동대문시장에 포목점을 차리고 여러 채의 집을 구입해 돈 좀 손쉽게 부를 증대시킬만큼 대담하다. 휴전 후 집값이 천정부지로 솟구치자 급기야 졸부의 대열에 들어설만큼 운이 좋기도 하다. 수줍은 듯 왜소한 몸 역시 그녀의 욕망만큼이나 한때의 빈티라고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풍만해졌다. 그녀에게서 도둑과 포주의 흔적을 찾기 어렵다. 수치스러운 과거를 완벽하게

19) 김홍중, '삶의 동물/속물화와 존재의 참을 수 없는 귀여움', 『마음의 사회학』, 문학동네, 2009, 143쪽.

지위버틸 정도로 그녀는 세속적 성공을 거두었다. 비록 다소의 어려움을 겪었지만 남매 쌍둥이 모두 최고 명문으로 꼽히는 서울대학교에 입학했으며, 장녀는 일찌감치 연애의 환상을 버리고 가난하지만 사법고시에 패스한 남자와 결혼을 함으로써 근본 없는 부자라는 콤플렉스로부터 벗어나게 해준다. 성불능이고 무능하기는 하지만 그녀는 전후 그토록 혼했던 과부도 아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풍요를 가능케 한 돈은 화수분처럼 마르지 않아 그녀의 삶을 지탱해준다.

그러나 속물적 기획은 자신의 모든 타락을 정당화했던 가족에 의해 붕괴된다. 김복실 여사가 겪는 크고 작은 배반의 정점에 남편 '지대풍'의 외도 사건이 놓여 있다. 전후 승승장구하는 아내와 달리 경제적으로 무능한 남편은 콤플렉스 때문에 아내와 성관계를 하지 못한다. 그는 아내의 경제력에 의존해서 겨우 살아가기 때문에 가족 안에서 가장의 권위조차 갖지 못한 거세된 남성이다. 그의 유일한 쓸모는 아내에게 남편 없는 불운한 여자를 면하게 해주는 것이다. 이렇듯 있으나마나 한 존재에 불과했던 그가 뜻밖에도 끔찍한 배반을 선사한다. 그는 아내의 돈을 아금아금 빼돌려 빈상의 절름발이 여자를 첩으로 삼아 이중생활을 한다. 그리고 이로써 무능의 책임을 아내에게 전가하고 거세된 남성성을 회복한다. 그는 아들을 얻은 후 더욱 대담해져 첩의 남동생을 아내의 운전기사로 채용함으로써 기만의 수위를 높여간다. 결국 그의 음모 혹은 방조에 의해 아내의 규모 있던 사업체는 무너지고 만다. 그 사이 성적으로 고독해 운전기사와 위험한 관계에 빠져들었던 아내는 결국 자신이 남편과 애인으로부터 모두 이용당했다는 충격적 진실에 눈 뜬 후 백치가 된다. 결국 그녀가 신앙처럼 떠받들었던 돈이 그녀를 공격하는 요소로 작용한 것이다.

“엄마는 오른쪽이 마비돼 있었고, 실어증에 걸려 있었다. 치료에 따라 차츰 회복될 거라고 했으나, 엄마가 약간 완화되고 실어증이 말더듬으로 회복되고 나서도 그 이상의 진전은 없었다. 엄마가 어눌하게나마 말을 하게 되고 나서 처음 한 말은 「배고파 죽겠다」였다. 엄마가 가장 자주 하는 말도 「

배고파 죽겠다, 여서 그 말만은 곧 더듬지도 않게 했다. 그 긴긴 수면 동안 엄마의 지글대던 온갖 욕망이 모조리 식욕으로 변질한 것처럼 엄마는 오로지 먹는 것만 탐했고 그 밖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았다. 엄마가 제일 싫어하는 건 옷을 갈아입거나 몸을 씻는 거여서 나는 엄마에게 옷을 갈아입히다 물리고 할퀴인 자리가 한두 군데가 아니었다.

엄마는 더 이상 회복되지 않았다.(하략)”(하편, 326쪽)

백치 혹은 욕망 밖에 남지 않는 동물에 가까운 김복실 여사의 모습은 그녀의 기획이 참담하게 실패했음을 상징한다. 모든 베일과 허위가 일거에 사라져 버린 그녀의 맨얼굴은 죽음의 구원이 오기 전에는 벗어날 수 없는 욕망의 수렁을 보여준다. 두 권 분량의 이 긴 장편소설은 이 한 장면에 다다르기 위해 그토록 많은 인물과 사건을 등장시켰다. 이 소설은 믿었던 남편으로부터 배반당하는 여자의 이야기라는 점에서 ‘막장드라마’를 연상시킨다. 가장 친밀했던 이가 가장 무서운 적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가족에 대한 파괴적 상상력을 보여준다. 그녀에게 기생하던 가족에 의해 그녀의 삶이 붕괴된 것이다. 이렇듯 가족 윤리마저 흔들릴 정도로 근대성은 모든 소중한 것들을 붕괴시키는 폭약을 안고 있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이 작품은 희생자의 숭고함을 부각시킴으로써 세상의 타락한 힘을 고발하는 멜로드라마가 아니다. 이러한 파국의 순간은 비극이 아니라 오래된 사슬로부터 풀려 나오는 해방과 독립의 순간으로 조명된다. 엄마의 비참한 모습을 목도하고도 딸은 지나치리만큼 담담하다. 파국은 통곡이 아니라 신생의 제의로 전치된다. 모든 허위가 불타고 난 자리, 즉 우리 삶의 바닥을 들여다봄으로써 욕망으로 놓여나게 만드는 것이다.

#### 4. 악녀의 도발, 순결한 ‘살’의 기획

이 소설은 페미니스트 성장 드라마의 징후를 띄고 있다. 수연은 70년

대 가부장적 과시즘 국가에 대한 작가의 염오와 환멸, 그리고 대결의식이 불러낸 문학적 페르소나이다. 70년대 사회가 가부장적 사회였음을 보여주는 것이 순수에 대한 과잉 집착 혹은 순결 콤플렉스이다. 성적 죄의식은 인간으로서의 욕망을 추방하고 여성들을 순결한 천사로 만들려는 기획이기도 하다. 70년대는 순결한 소녀, 정숙한 현모양처를 이상적 여성상으로 등장시킴으로써 근대화를 가부장적 기획으로 등치시킨다. 문학 역시 이러한 가부장적 아이디어로부터 자유롭지 못해 순결무구한 처녀들이 사회적 악에 의해 희생되는 과정을 형상화함으로써 근대성의 억압적 힘을 은유하는 다른 한편으로 무참히 희생되는 그녀들을 지키기 못한 자책감과 죄의식에서 비롯된 비애를 호소함으로써 자기 주체성을 회복하려 한다. 정치적 검열의 공포 속에서 저항적 남성 지식인들에게 여자는 세계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렇듯 주체성을 복구를 위한 정서적 기획이 성공할 수 있도록 여성들은 모두 순결한 백치나 가엾은 희생자로 머물러 있어야 했다.<sup>20)</sup> 박정희 정부의 억압적인 정치, 동시대 남성작가들의 가부장적인 상상력에 저항하듯 작가는 수연을 70년대의 이상적 여성성과 아주 먼 거리에 세워 둔다. 이타적이고 헌신하는 여성성이 식욕과 성욕으로부터 자유로운 핏기가신 얼굴의 창백한 소녀인데 반해 그녀는 뜨거운 피와 섬세한 감각의 몸적 존재이다.

“버스에서 내리자 바로 스낵가게이다. 내 건강한 식욕이 명치끼에서 음흉한 소리를 내며 꾸룩거렸다. 그러나 나는 그 앞을 그냥 지나칠 수 있었다. 나는 무엇보다도 먹는 쾌락을 사랑했고,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으로 누리길 바랐고, 또 그 방법을 알고 있었다. 곧 저녁을 먹을 수 있는 시간에 굳 것질 따위로 저녁맛을 잡쳐놓을 수는 없는 일이었다.

20) 70년대 최인호, 박범신, 조해일 등의 청년문화세대의 청춘 멜로들은 가부장적 상상력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을 살펴볼 것. 김은하, '남성성의 형성과 여성의 몸-1970년대 소설을 대상으로', 『내일을 여는 작가』, 작가회의 출판부, 2004년 겨울.

나는 천천히 공복감을 즐기면서 걸었다. 맛있는 음식을 계절스럽게 포식하기 직전의 허기증이란 얼마나 쾌적한 것일까.”(상편, 11쪽)

소설의 첫 장면에서 수연은 맛있는 음식의 향연을 기대하면서 집으로 가고 있다. 그러나 그녀의 섬세한 미각, 건강한 위장을 만족시켜 줄 식사의 만찬을 즐기지 못한다. 물론 그녀의 집에는 잔치집에서나 볼 수 있는 성찬이 차려져 있지만, 그것은 수연의 것이 아니라 입대를 앞둔 쌍둥이 수빈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녀가 아닌 수빈을 위한 음식들, 그를 향한 할머니와 어머니의 광기와도 같은 사랑을 목도하며 수연의 식욕은 사라지고 만다. 그녀의 식욕은 단지 음식으로 채워질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가부장적 가족 구조 하에서 그녀는 한낱 수빈의 장애물로 규정되거나 2등을 면할 수 없는 결여 그 자체이기에 만족은 끊임없이 유예된다. 그러므로 충족될 수 없는 식욕은 이제 음식에 대한 특별한 애착으로 발전해, 닥치는 대로 삼키고자 하는 폭식 혹은 충분히 화려한 성찬을 즐기려는 탐식으로 발전한다. 즉, 그녀는 최소한의 음식에 만족하거나 맛없고 거친 음식을 받아들이는 식으로, 음식에 대한 가부장적 기율에 복종하기를 거부한다. 그녀는 대식가, 탐식가이다. 그러나 수연은 먹는 것으로 자기 존재의 허기를 견디는 타협에 만족하지 못한다. 그녀의 충족되지 못한 욕망은 한층 더 근원적인 만족을 구하기 위한 모험에 나선다. 수연의 충족되지 못한 식욕은 친족을 파괴하고 삼킴으로써 만족을 구하는 가족 카니발, 즉 가족을 희생제물로 삼아 가족을 공격하는 역설의 제의로 발전해간다.

수연은 한국문학사가 보유한 악녀의 계보 속에서 가장 영리하고도 냉혹한 악녀에 속한다. 그녀는 강신재의 소설 속 악녀들처럼 타고난 뜨거운 피나 치명적인 아름다움으로 누군가를 파괴시키는 태생적인 악 혹은 ‘애브노멀’한 여성성이 아니라 치밀하게 의도하고 날렵하게 공격하는 ‘이지적인 악’이다.<sup>21)</sup> 기실 내부는 부패했지만 겉보기에 아무 문제 없어 보이

21) 강신재의 장편 『밤의 무지개』(청조사, 1976), 『불타는 도시』(1978) 등의 작품을 볼 것.

는 김복실 여사의 일가를 풍비박산낸 것은 그녀의 남편이 아니라 딸인 수연이다. 물론 수연이 의도하지 않은, 즉 우연적으로 발생한 ‘악’도 있다. 그녀는 순전히 우연히 산동네에서 아버지가 첩살림을 하는 집을 발견했고, 잠결에 옷을 벗은 채 취한 수빈을 끌어안고 있던 탓에 쌍둥이 오라비를 유혹한 것으로 오인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의였다 할지라도 그녀의 행위는 궁극적으로 악한 결말을 가져온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거짓으로 받아낸 돈으로 첩의 출산을 돕고 아기의 우유값을 낸다. 아버지와 그의 첩의 동생에 의해 어머니가 농락당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우물쭈물하다 어머니를 수렁에 내몰고 만다. 물론 의도한 행위도 많다. 사랑도 없으면서 순전히 계산적인 잇속으로 결혼하려는 형부와 언니의 삶을 혼돈에 빠뜨리기 위해서 형부가 될 이를 유혹해 그와 성교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그녀가 의도적인 악임은 자신의 어머니를 위협 속으로 내몰아 끝내 백치로 만드는 데서 드러난다.

우린 남의 차를 탄 가난뱅이처럼 어색하게 차에서 내렸다. 바로 눈앞에 까만 타일 기둥을 파고 들어앉은 <지대풍>이란 문패가 보였다.

「여기예요. 아버지의 작은집이」

나는 엄마에게 말했다. 엄마의 안색은 차 속에서 충분히 파리해져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변하지 않았다.

「그까짓 문패 갖고 사람 놀리지 마라 애」

엄마가 묘하게 가냘픈 소리로 말했다.

(중략)

나는 내가 아는 비밀을 고자질하지 않았었다. 그때마다 엄마를 위해서라고 생각했다. 엄마가 그걸 알게 하는 건 너무 잔인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이렇게 효녀인 체하고 있는 사이에 비밀은 자꾸 붙어났던 것이다. 이제야 알겠다. 결코 엄마를 위해 그걸 감추어둔 것이 아니었음을. 언젠가는 엄마에 대한 가장 잔인한 보복의 수단으로 삼기 위해 그것을 그렇게 몰래몰래 키워왔음을 이제야 알겠다. 아아 가엾은 엄마.”(하편, 309~310쪽)

위의 인용문은 기실 모든 파국이 그녀의 은밀한 계획과 소망 속에 실현되었음을 암시한다. 자신의 어머니를 희생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녀를 불세출의 악녀라 할만하다. 그러나 그녀가 예사롭지 않은 악녀인 까닭은 대개의 악이 파괴가 궁극적인 목적과 달리, 그녀는 파괴를 통해 새로운 시작을 기획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그녀는 순수하게 악을 탐하기보다 악을 구원의 통과제의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끔찍한 가족 카니발은 재생을 위한 죽음의 제의, 신생을 향한 혁명이다. 이러한 이유로 수연은 정신을 놓은 어머니를 보고도 연민에 젖기보다 자립의 해방감을 느끼는 것이다. 사실 수연은 오래 전부터 자립을 꿈꾸어왔다. 대학 졸업 후 그녀는 적당히 시집을 가는 것을 거부하고 시골의 임시 교사가 되기 위해 집을 떠났던 적이 있다. 그러나 자립은 결코 집을 떠난다고 저절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그녀가 면접을 본 시골 학교는 그녀의 집보다 더한 숙물의 공간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자립이 직장을 갖고 돈을 벌게 됨으로써 사회 속의 일부가 되는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그녀가 꿈꾼 것은 반숙물성, 반도시성을 함축한 대항적 자립의 길이다. 즉, 그녀는 사회의 타락에 맞서며 이상적인 사회공동체를 향해 가는 성숙의 통과제의를 기획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소설은 한국문학사에서 드물게 만날 수 있는 교양소설의 면모를 보여준다.

그녀가 원하는 진정한 자립은 무엇인가? 그녀는 도시를 벗어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한다. 그곳에서 구주현과 함께 농사를 지으며 살고자 한다. 그러나 욕망에 대한 죄의식에 짓눌린 채 농촌 재건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귀향을 서두르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 귀향은 문명의 허위를 넘어서기 위한 것으로서, 근대화 기획을 부인 혹은 거부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부농을 꿈꾸고 있지 않다. “문제는 땅이야. 그분이 남긴 땅도 척박하고 웅색하지만 풍부한 감동이 있거든.”(하편, 381쪽)이라는 구주현의 말이 암시하듯이 그들은 비틀리고 왜곡된 욕망의 도시에서는 찾을 수 없는 순결한 감동을 찾고 싶어 한다. 그러므로 여기서 땅은 실물로서의 토지가 아니라 순결하고 정직한 삶의 메타포라고 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

면 농사짓기는 아내와 아들을 도시에 뺏기고도 묵묵히 농사를 지으며 그들의 귀향을 기다릴 정도로 세상의 흐름에 무심하고 잇속에 서툴렀던 “골수 농사꾼”(하편, 365쪽)의 어리석은 삶의 방식을 이어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구주현 아버지의 어리석고 답답해 보이는 삶의 방식이 구주현에게 알 수 없는 감동을 안겨주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그의 삶이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아니라 가장 정직한 삶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흙이 근대 한국인이 너무도 쓸쓸하고 참담한 고장, 즉 도시에서 벗어나 올 수 있는 메타포인 것처럼 순결한 살의 만남은 질긴 가족 혹은 비릿한 쇠붙이 냄새인 양 혼탁해진 욕망을 정화하는 혁명적 제의로 제시된다. 박완서는 구주현과 수연이 첫날밤을 치루는 것으로 소설의 대미를 장식함으로써 순결주의나 금욕주의를 지지하는 게 아니라 더럽혀지지 않은 욕망을 꿈꾼다. 이때 ‘살’은 죄악과 금지의 대상이 아니라, 순수의 시절로 되돌아가기 위한 통로로 제시된다.

“그가 허둥지둥 택시를 잡고, 나는 익숙하게 얼마 전 성미영이 화장을 고쳐하던 호텔 이름을 뱉었다. 우리는 긴장하고 있었지만 상습범처럼 손발이 잘 맞았다.

조출하고 정갈한 도시가 한눈에 내려다보는 수려한 산마루에 있는 호텔 주변엔 벚꽃이 만발해 있었고, 넓은 잔디에 군데군데 심은 노랑 팬지꽃이 수많은 나비 떼가 내려앉아 날개를 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그가 먼저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중략)

그가 방을 찾고 여는 걸 나는 신기하게 지켜보았다. 우리 앞에 열린 방은 아늑하고 깨끗했다. 무엇보다도 우리 사이엔 철창도 없고 죽은 사람이 남긴 물건도 없었다. 그하고 나만 있었다. 우린 그걸 새삼스럽게 확인하기 위해 감동스럽게 애무했었다. 마치 태어나기 전에서부터 그를 위해 갈망의 공동(空洞)을 파고 있었던 것처럼 나는 비고, 어느 순간 소멸하고 그가 거인처럼 벅차게 충족해 왔다. 나는 그를 찬양하는 대신 떠나지 않겠다고 거듭 맹



세하고 그 역시 나를 안 보낼 거라고 몇 번이나 다짐했다.”(하편, 387~388쪽)

위의 장면은 작가가 아무런 허위가 섞이지 않는 욕망을 예찬하고, 그렇듯 순결한 욕망으로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기 소망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수연과 구주현이 첫날 밤을 치루는 호텔은 추악한 인위가 섞이지 않는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운 정원에 둘러싸여 있다. 즉, 그곳은 문명의 입김이 스며들지 않는 순결의 세계이며, 구주현과의 성교는 형부 서재호와의 성교에서 그녀가 느꼈던 “질긴 가죽구두”와도 같은 문명의 냄새가 아니라 세계를 문명 이전으로 되돌려 놓는 순결한 만남인 것이다. 이로써 수연은 어머니와 산부인과 의사의 공모로 그녀의 몸에 부착된 “인공의 순결”(하편, 389쪽)을 떼어내게 난다.

## 5. 결론

여성대중소설은 여성작가에 의해 창작되어 주로 중산층 가정이나 사생활 영역 등을 무대로 연애나 불륜 등의 소재를 범죄, 치정, 폭력과 연관시켜 센세이셔널하게 가공해 국가 근대화기의 규범과 이데올로기의 자장 안에서 당대 여성 혹은 여성성의 위치를 보여준다. 여기서 선정주의(Sensationalism)는 말초적이고 자극적인 흥미를 불러일으키려고 하는 태도나 수법과 무관하지 않지만, 뜻밖의 효과를 발생시킨다. 주로 범죄, 치정, 폭력, 일탈적 섹슈얼리티 등 자극적인 소재를 내세워 남녀관계나 중산층 가정생활의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성격을 암시 · 폭로하고, 여성 인물의 양면적 요소를 통해 여성의 육체와 섹슈얼리티에 부여된 관습적 규범들을 모호하게 만드는 일련의 소설을 가리킨다.<sup>22)</sup> 이 글은 그간 통

22) 이러한 현상은 근대의 부르주아 시민사회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범문화적 현상인 탓에 영미소설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낸시 암스트롱의

속소설로 폄하된 다수의 소설을 좀더 적극적으로 읽어낼 수 있다고 본다. 여성작가들이 연애나 가정 이야기에 주력한 이유가 단지 상업주의적 목적에 있지 않고, 여성억압적인 가정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이 깔려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앞서도 말했듯이 70년대 여성대중소설은 전 시기의 여성대중소설의 문법-연애지상주의, 신데렐라 플롯, 구원의 천사로서의 여성, 사랑의 승리 등-과 현격한 차이를 보여준다. 전 시기 소설들은 근대적 가정에 대한 여성들의 기대만이 아니라 여성성에 대한 자부심마저 엿보인다. 이는 여성이 가족의 중산층 가정의 주인으로 부상하면서 여성적 권능을 움켜쥐으로써 지위가 상승했다는 점과도 관련된 현상으로 볼 수 있다.<sup>23)</sup> 가족이야말로 근대적 공공영역, 즉 시민사회의 핵심이다. 근대는 가족의 승리라 일컬을만큼 가족을 보편적 삶의 양식으로 만들었는데, 이때 가족은 저마

---

가정소설, 장정희의 명칭을 빌면 선정소설들이 유사성의 사례에 속한다. 특히 '선정소설'은 가정성 예찬의 이데올로기를 가정에 관한 끔찍한 상상력을 통해 비틀고 있어 비록 시공간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개발독재기 연재소설에 나타난 가정과 여성에 관한 상상력과 유사한 점이 있다고 본다. 장정희에 의하면 여성선정소설은 1860년대 초 빅토리아 시대 대중의 인기를 끌었던 장르소설을 가리킨다. '선정소설'(Sensationalism)은 미스터리 소설, 고딕 소설, 탐정소설의 요소를 공유하며 당대 인기 있었던 멜로드라마 연극과 센세이셔널한 저널리즘의 영향을 받은 복합 장르로서 증혼, 뒤바뀐 정체성, 신분의 위장, 유괴, 살인, 협박 등의 소재가 주를 이룬다. 선정소설은 당시 문학적 가치가 없는 대중소설로 평가받았지만 훗날 여성 비평가들에 의해 빅토리아 시기 가정성 예찬 이데올로기가 여성에게 가하는 억압을 성찰하게 한다는 점에서 페미니스트 소설로 재평가 받아왔다. 장정희, 『선정소설과 여성』, LIE, 2007, 5~26쪽.

- 23) 크리스토퍼 래쉬는 19세기 여성의 일상문화를 연구하는 가운데 여성이 가정성 예찬의 희생양이 아니라, 여성을 중심으로 근대적 가족문화가 형성되었는데, 이는 성평등적인 문화가 확산된 증거라고 주장한다. 낸시 암스트롱 역시 '가정의 여성'은 사적인 영역에 여성을 한정시킴으로써 비정치적인 것 같지만 오히려 남녀가 대등한 성별의 계약관계에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치적이며 궁극적으로 사회에서 여성들은 남성들에게 대항할 수 있었다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평가들은 성별분업의 억압성에 대한 비판적 시선이 무디다는 한계가 있지만, 가정을 여성 규율의 공간으로만 보는 일면적인 시선을 극복할 계기를 선사한다. 크리스토퍼 래쉬 지음, 엘리자베스 래쉬 엮음, 오정화 역, 『여성과 일상생활-사랑, 결혼, 그리고 페미니즘』, 문학과지성사, 2004, 44~77쪽.

다의 도덕성을 부여받은 개인들의 삶의 기반이었다. 자기만의 침실, 거실의 자유를 누리고 가족을 통치하는 것은 부르주아적 시민 혹은 개인의 특권이였다. 특히 한국에서 시민적 공론 영역으로 주어진 유일한 것이 가족이었다. 살롱, 광장, 미디어 등 근대적 공론장들은 한국에서 뒤늦게 출현한다. 유일하게 허락된 부르주아적 공론장은 가정이다. 근대는 개인의 발견, 중산층 가정의 발견과 연결된 주제이다. 도덕적 시민의 스위트 홈의 구성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스위트 홈의 도덕적 기반은 거의 절대적으로 성과 관련해 판정된다. 무질서나 타락과 무관한, 도덕적 시민의 가정상을 기준으로 여성이 정의되기 시작한다. 누가 이상적인 여자인지 모델을 제시하는 식으로 연애소설은 여성 계몽의 대중적 교과서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70년대에 오면, 구원의 천사같은 순결한 여성은 사라지고 악녀가 소설의 전면에 부상하게 된다. 60년대 가족 근대화에 대한 기대가 실망으로 변하고 ‘구원의 여성’ 표상이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는 점이 간과되면서 여성대중소설들은 탈남민주의를 선언하며 선정주의적 기획으로 가정 해체의 상상력을 선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70년대 여성대중소설이 주로 악녀이야기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물론, 모든 악녀가 70년대 소설에서 갑자기 등장한 것은 아니다. 악녀는 사실상의 주인공이라 할만큼 대중소설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인물이다. 실제로 전후문학은 성역할의 변화, 가부장적 권위의 쇠퇴, 서구적 생활 패턴의 유입, 대중문화와 소비주의의 확산이라는 급속한 환경 변화 속에서 당대인들이 느꼈던 당혹감, 불안과 공포를 전적으로 여성의 성적 타락이라는 문제로 일원화하여 몰아간다. 그럴 때의 해결책은 자명하다. 여성의 방종한 섹슈얼리티는 응징되어야 하고 그녀는 자신의 죄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내러티브에는 근대화의 주체는 남성이며 여성은 세상의 변화와 관계없이 전통적인 역할을 고수해야 한다는 보수적이고 성차별적인 이데올로기가 작동하고 있다. 즉, 한국의 주류 대중문화가 상상하는 타자의 귀환, 타자의 역습은 대개 성적으로 타락하거나 괴물스런 여성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사회적

모순을 여성의 섹슈얼리티 문제로 치환시키고 여성의 성적 타락을 처벌함으로써 문제의 본질을 은폐하고 봉합하려는 해결방식은 한국대중문화의 클리셰이다. 즉, 여성의 육체는 여성의 욕망과 섹슈얼리티가 표현되고 발화되는 장소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근대화 과정에서 파생한 갈등과 퇴행성, 의미들이 담겨지고 분출되는 그런 공간이다.

이렇듯 대중소설에서 여성 인물은 성녀와 악녀로 이분화되고, 서사의 전개와 함께 악녀로 규정된 여성이 텍스트 바깥으로 추출됨으로써 남성성이 복원되고 가정은 회복되는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70년대 여성대중소설은 악녀들의 희생자로서의 위치를 부각시킴으로써 모든 책임을 악녀에게 전가하는 사회의 폭력성을 환기시키는 측면도 있다. 70년대에 오면 악녀들은 그 어느 때보나 적극적으로 활약한다. 강신재 소설이 그러하듯 악녀들은 착한 여자로 위장하고 중산층 가정으로 들어가 남성성을 조롱하며, 경제적 타격을 입힌다. 펠스키는 여성 괴물의 원형으로서 악녀의 도상이 대중소설에 빈번하게 나타난다는 것은 “남성 독자들은 물론이거니와 여성 독자들에게도 잠재적인 호소력을 발휘한다”고 지적하며, “문화적 스테레오 타입으로서 팜프 파탈이 어떤 여성들에게는 정숙한 가정적 여성성 아니면 ‘무성(sexless)’의 페미니스트 악녀라는 양자택일적인 상투적 이미지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고 보는데, “팜프파탈은 권위와 정력을 강력한 성적 능력과 결합시키면서 남성의 세계와 가치에 대한 경멸을 오만하게 표현하기 때문이다.”<sup>24)</sup> 이렇게 본다면 70년대 여성대중소설의 악녀를 남근 권력에 도전해, 가부장제가 구축한 젠더의 경계를 훌뜨리고 위협하는 전복적인 여성인물로 재조명할 수 있다.

박완서 소설을 강신재의 중후기 소설들과 같이 묶는 일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강신재소설은 훨씬 더 대중적이고 그 문학적 가치가 그다지 높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박완서 소설은 하위대중문학의 선정적 기획

24) 리타 펠스키, 김영찬·심진경 역, 『근대성과 페미니즘』, 거름출판사, 1998.

의 주요 목록들을 적극 차용해 한국근대화와 가족에 대한 전복적인 상상력을 펼쳐 보임으로써 여성대중소설의 선정주의의 의미를 재발견하게 만든다. 물론 박완서의 『도시의 흥년』은 아쉬운 부분이 많다. 도시 탈출-시골로의 귀환이라는 플롯과 땅의 메타포는 다소 선언적, 신비주의적의 해결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사건의 합법칙성보다 작중인물의 파괴적 의도에 의해 사건이 전개되고 있기도 하다. 무엇보다 페미니스트 성장 드라마로서 선구적인 측면이 분명 있지만, 어머니를 한국적 근대의 속물성으로 비유하고 결국 스스로 좌초하는 인물로 그리고, 결국 주인공이 구주현이라는 이상적 남성과의 결혼으로 어머니의 집을 떠난다는 설정은 이 소설이 여성혐오주의로부터 자유롭지 않으며, 여성의 성숙을 연애와 결혼에서 찾는 가부장적 상투성에 갇혀 있음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박완서, 『도시의 흥년』, 세계사, 2002.

### 2. 단행본

김홍중, 『마음의 사회학』, 문학동네, 2009.

리타 펠스키, 김영찬·심진경 역, 『근대성과 페미니즘』, 거름출판사, 1998.

린다 허치언, 김상구·윤여복 역, 『페러디 이론』, 문예출판사, 1995.

벤 싱어, 이위정 옮김, 『멜로드라마와 모더니티』, 문학동네, 2009.

빌헬름 라이히, 오세철·문형구 역, 『파시즘의 대중심리』, 현상과 인식, 1987.

이한구 편역, 『칸트의 역사철학』, 서광사, 1992.

윤병로, 「현대 여류 작가의 문학적 성향」, 『한국현대소설의 탐구』, 범우사, 1980.

장정희, 『선정소설과 여성』, L.I.E, 2007.

- 조한혜정, 『성찰적 근대성과 페미니즘』, 또 하나의 문화, 1998.
- 한원영, 『한국현대 신문연재소설연구』, 국학자료원, 1999.
- 크리스토퍼 래쉬 지음, 엘리자베스 래쉬 엮음, 오정화 역, 『여성과 일상생활  
-사랑, 결혼, 그리고 페미니즘』, 문학과지성사, 2004.

### 3. 논문

- 김양선, 「전후 여성문학 장의 형성 연구:여성잡지와 여성문학의 공생을 중심으로」, 『『여원』연구-여성·교양·매체』, 국학자료원, 2008.
- 김예림, 「1960년대 중후반 개발 내셔널리즘과 중산층 가정 판타지의 문화정치학」, 『현대문학의 연구』 제32집, 2007, 339~375쪽.
- 김은하, 「남성성의 형성과 여성의 몸-1970년대 소설을 대상으로」, 『내일을 여는 작가』, 작가회의 출판부, 2004년 겨울.
- 김은하, 「완료된 전쟁과 끝나지 않은 이야기」, 『실천문학』, 실천문학사, 2001년 여름호(62호), 258-272쪽.
- 다니자키 아쓰코, 『현대 한국중산층 주부역할 형성과정에 관한 분석-6, 70년대 여성잡지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 신 건, 「1960~70년대 근대화 프로젝트와 여성담론에 관한 연구-여성단체 협의회의 『여성』지 분석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 오생근, 「대중문학의 전개」, 권영민 엮음, 『해방 40년의 문학4』, 민음사, 1977.
- 이동하, 「집없는 시대의 꿈」, 『세계의 문학』, 1982. 겨울.
- 이선옥, 「‘여류현상문예’와 주부담론의 균열」, 『『여원』연구-여성·교양·매체』, 국학자료원, 2008.

**Abstract****Secrets and lies, the pleasure of exposure and revealing**

-Based on the obscenity on the national modernized women's popular novels-

Kim, Eun-ha

This manuscript is through Park Wan Suh's "Famine of the city" (79) showing the women's writing is focused on escaping or breaking from the country's dominant standard of the times around middle class families and women, and the creative activities that are classified as common 'Female' artists are reinterpreted. The popular novels for women were mostly about liaison, crime, violence, madness, secrets, and sexual immortality, provocative and grotesque materials which appeared to hinder the custom for the commercial interest which has been accepted as a problematic phenomenon. However, the sexually suggestive contents are not for the commercialism but the outcome of the hysterical resistance towards the paternalism country under compulsion of staying celibate and over morality. It is true that the women's popular novels often dealt with the secretive private life in a shocking and sensual way which has considered the commercial value. However, in the process of peeling the veil of illusion, the systems and belief of the social custom is reviewed and the matter of sexual politics is gathered. It looks particularly ideal and calm but the dissatisfaction and anger inside might lead to the crime in the homes and society which cannot ignore the cultural and social aspects and women's literary value.

As an example, Park Wan Suh's "Famine of the City" is full of desire to expose the truth of the middle class family laden with secrets and lies. She has put the novel on the table and heartlessly and deftly dissected the Korean middle class family. The middle-class family in Korea is driving force of the modern project, and it is a significant choice by sealing many kinds of errors and cracks occurred in the process. Park Wan Suh and her literature is also an interesting case of treachery. In the age of 40, Park Wan Suh has become an epitome of female artists through publishing in women's magazine "Women Dong A". However, instead of straightening out the women as an enlightenment of leading the modernization of the national subject, she is showing and uncovering the subversive writing of the country's modernization and patriarchal oppression and fraud.

Key words : women's popular novels, obscenity, national modernization, middle-class families, women's literature, oversight of sub-cultural, Park Wan Suh, "City of the Famine" (1979), etc

■ 본 논문은 10월 31일에 접수되어 11월 8일부터 20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11월 26일에 게재 확정되었음.